

'불교환경의제 21' 마련 워크숍 회향

연계성 갖고 보다 근원적 추진 필요 의제21 점검표작성 실천사항 평가 중단내 불사위원회 설치도 바람직

불교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부대중의 행동약속인 '불교환경의제21' 수립을 위해 불교계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교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위원장 미산, 조계종 사회부장)는 5월 23~24일 양일간 충남 도고 글로리 콘도에서 '불교환경의제21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한명숙 환경부 장관 등 17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워크숍은 이병철 녹색연합 공동대표의 '환경운동, 왜 생명인가' 강연과 이병인 국립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불교환경활동의 평가와 전망' 주제 발제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불교환경운동의 주요 문제점에서 "종단의 경우 정치적이고, 일시적이며, 임기응변적이고 세속적인 경향이 있고, 불교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이며, 연계성을 갖는 일을 지속적



◁5월 23~24일 충남 도고 글로리 콘도에서 열린 '불교환경의제21' 워크숍 장면.

"10월 2차 워크숍...윤곽 드러날 것"

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대해 이정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무처장은 △불교환경활동

의 다양화 △종교간 환경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연대 활동화 △불교생명운동의 지역화와

생활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일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찰의제21을 위한 제언' 발제에서 사찰의제21의 3가지 핵심요소는 △지속가능한 개발(수행환경보전) △동반자(종단, 사찰, 신도, 사회) 관계 △행동계획 이라고 정의하고 "의제21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표를 만들어 진행과정과 실천사항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개별 사찰 불사를 통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종단적 장치가 전무해 대항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종단에 불사위원회를 뒤 친환경적 불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 및 발제토론 후 분과토론에서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분과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쓰레기 제로 운동 △일회용 사용하지 않기 등을, '생태 사찰 만들기' 분과는 △발우공양 정신 살리기 △사찰 유류지 나무심기 등을 제시했다. '수행환경 지키기' 분과는 △신도회 사찰 운영 참여 △수행환경 개념 확대 등을 '사찰과 지역공동체' 분과는 △공공미를 친환경적적으로 올리자 △생명살림 책임질 인재불사 시작 등을, 결과물로 내놓았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류철주 간사는 "이번 워크숍은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계 내부 점검과 반성에 중점을 뒀다"며 "올 10월에 있는 2차 워크숍에서 불교환경의제21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

강탈 국보불상등 4점 무사회수

범인1명 구속, 도주공범 1명 자수의사 밝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강탈당했던 국보 불상 등 문화재 4점이 15일 만인 5월 26일 모두 되돌아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공주경찰서와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인근 우유대리점 출입문 앞 빈 화분 속에 수건으로 싸여있던 국보 제247호 공주의대금동보살입상을 회수한 데 이어 5월 30일 호남고속도로 유성IC 인근 비상전화박스 뒤편 풀 속에서

조선시대 분청사기인화문접시, 고려시대 청자상감포류문대접 및 청자상감국화문고배행기 등 나머지 비지정 문화재 3점을 회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공주박물관에 점입 문화재 4점을 강탈한 입모(31)씨를 구속하고 도피 중인 공범 박모(3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또한 훔친 문화재인 줄 알고 도둑범 박모(35)씨 등 장물반환책 3명을 구속하고 입씨로부터 '문화재 4점의 처분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경

찰에 제보한 손모(36)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이번 범행은 입씨에게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박씨의 제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은 공주박물관 금동불상 회수와 관련해 5월 27일 논평을 내고 경찰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성보박물관 도난방지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권형진 기자

방송내용 불만사항 전화로 알려주세요 보리방송모니터회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가 시청자 전용 전화(02-745-5811)를 24시간 운영한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그동안 시청자 제보 전화를 운영해 왔으나, 전용 회선을 두지 못해 효율적인 시청자 제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혜승 간사는 "시청자 주권 찾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올착공 어렵다

환경청 "환경평가 변경내용 이행후 시공"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올 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5월 25일 통영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공사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리 사업계획내용이 변경(모노레일 승강장 폐지 및 하부 콘

도라승강장 부지변경 등)됨에 따라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가정폭력 상담가 교육생 모집

여불련, 6월25일부터 2개월과정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 이하 여불련)가 2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 과정의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서울 인사동 여불련 사무실 내 연꽃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동국대 불교학과 이현욱 교수와 박숙사 국회여성위원회 전문위원, 변

하순 한국여성개발원 실장, 정제숙 여성부 폭력방지과장 등 25명의 강사가 '불교에서 본 가족문제', '여성 상담의 기초개념',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02)738-5586 여수령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이라크 어린이·주민돕기 JTS, 자원봉사자 모집

한국JTS이사장 법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만 20세에서 35세 남자 7명과 여자 5명을 모집하는 이라크 파견 자원봉사자는 17일부터 30일까지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신청자는 서류접수 후 면담 과정을 거쳐 JTS에서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교육을 받아야 최종 선발된다. 문의 02)587-8756

한편 JTS는 이라크 바그다드 근교 3개 마을 3500가구에 긴급식량구호를 했으며, 초등학교 학생 6000여명에게 학용품들을 지원했다. 또 전염병 방지를 위해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명성여고 북한동포돕기 성금 전달

평북협에, 전교생 자비의 쌀 모아 조성

조계종립 명성여고(교장 정정식)는 5월 27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다, 이하 평북협)에 북한동포돕기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교생이 자비의 쌀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절반은 교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나머지 절반은 북한동포돕기에 쓰인 것이다.

한편 평북협은 같은 날 임시사회를 열고 서울 성북동에 통일법당 건립을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명성여고 학생들이 5월27일 평북협회장 법다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목탁소리 법장스님의 단호한 원칙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지난 5월 23일 열렸던 중앙종무기관 총무원 워크숍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법장스님은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종단정치의 고질적 병폐이자, 안정과 화합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했던 계파정치를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또 "변화와 개혁을 거스르는 경우라면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정치적 행보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의 시기와 뇌유상을 종합해볼 때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법장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가장 심혈을 기울여왔던 별빈 집계사 사면은 중앙종무 각 계파의 이해에 의해 일단 무산됐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 소임자 자리를 놓고 각 계파의 견제에 시달

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 셀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마당에 계파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은 앞으로 '주고받기식'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총무원장의 능력은 '정치적 수완'에 의해 평가됐다. 계파 간 이해를 얼마나 잘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던 것이다. 여기에 '올고 그름'의 가치판단이나 '불교발전'에 대한 문제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파정치는 하루속히 청산해야 할 구태다. 명분과 실리가 맞설 때 실리가 우선시되는 집단에는 희망이 없다. 많은 불자들은 지금 계파정치를 청산하길 바란다. 그리고 현재는 일부 소임자 자리를 놓고 각 계파의 견제에 시달

남동우 기자

부처님 기쁘기 증민인 우리절

이라크 전쟁과 사스·알제리 지진 희생 영가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위로를.....

- ▶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 ▶ 지금도 SARS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 ▶ 최근에는 알제리 지진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의 의거 불우한 영가를 전도합니다.
- ▶ 모두 오셔서 유행을 달리아신 국제영가님들에게 짜 한잔씩 올립니다.
- ▶ 행사안내
 - 일 시 : 2003년 6월22일 일요일 오전10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 큰법당
 - 법공양 : <일원곡> 제5권 (동봉스님의 40번째 책)
 - 후 원 : 동선회, 계운행복, 목련사랑, 신도회
 - 결단임 : 동봉스님 출판기념회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 제5권과 목련사랑에서 보시한 배건을 나누어 드립니다.

장소: 곤지암 우리절
www.urijeol.com
우리절.net
Tel: (031)763-4674~5